



직위 전부가 안전관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테헤란로에 빌딩이 들어선다. 지하 5층에 지상 20층의 대형건물로 테헤란로의 또 하나 명물이 탄생되려고 하고 있다. 취재 가던 날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였는데도 현장 직원들은 자재 반입 및 다 음 공정준비를 위해 분주하였다.

풍림산업(주)에서 신축중인 (주)제론시스템 안제타워(소장 손석현)는 2001년 3월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 예정인 현장으로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중의 하나인 도심자에서 품질, 안전과 환경을 향상시키며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안전에 대해 아끼지 않는 투자

손석현 소장은 1979년 풍림산업(주)에 입사한 후 여러 현장을 거쳐 이 곳 안제타워 신축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손소장은 안전에 대하여 "79년 입사한 후 86년도 수안보현장에서 골조작업 중 인 부가 철근 위에 놓인 합판이 낙하하여 머리에 맞아 부상하여 병원 후송 후 하루 뒤에 사망한 재해를 보고 안전의 중요성을 뼈속깊이 되세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머리가 불편하다고 쓰지 않았던 안전모 만 썼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다. 기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로 유가족에게는 죄인이 되고, 회사에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된다. 이는 곧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



손석헌 소장

겨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16년전 안전의식이 낙후된 시기부터 깨달은 것이다. 이 때부터 안전 작업을 위한 관리 비용은 아

끼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 건설현장 전반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많이 향상을 하였으나, 1군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잘하던 근로자가 2,3군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1군에서 근무할 때면 안전의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 건설업체 전반적인 안전수준의 향상 또는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회사 및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고, 또한 일을 할 때 빨리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 지더라도 안전하게 선조치 후 공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도 점심식사 후 1시간정도 실시하다보니 줄고 근로자들의 의욕도 저하되고 해서 가급적 교육은 10~20분 이내로 자주 실시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본 현장은 도심지공사로 현장 앞의 테헤란로의 교통이 혼잡하므로 야간공사도 병행되고 따라서 조명을 밝게 해주고, 공정이 바뀌면서 담당 직원 배석하에 정리 정돈된 상태에서 작업장을 인수 인계하는 등 주변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있으

며, 청결 환경운동을 실시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는 청소를 실시하는데 협력업체소장, 직원 등 담당구역을 정하여 지하층 및 현장 내부 뿐 아니라 외부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각자가 안전관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 층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에 협력업체 소장도 동참시킴으로서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본사 차원의 안전활동

현장차원의 안전활동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현장별 상호교류 점검 실시를 계획중이다.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관리 능력 배양, 현장내 청결 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환경분야의 조별 상호 교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 안전환경팀에 보고, 관리 및 검토하는 등 현장간의 선의 경쟁과 정보교류를 통해 안전·환경관리상태가 개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심지 공사의 애로사항

본 현장에서는 토공사가 설계상 지하 25m 굴착으로 되어있고 바로 암반이 출현하여 토공사에만 6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어려웠다고 한다. 발파대상 지역주변에 도심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지반진동 및 폭풍압, 비석의 공해요인이 이들 대상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인 「제어발파에 의한 암반절단기술(NPS : New -Presplitting)」을 현장에 적용하여 발파 전(前)단계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발파구역 외곽 암반을 사전에 절단하여 피해대상물에 전파하는 진동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미진동 제어발파의 실시로 진동을 최소화(0.2kine)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시공을 기준치 이내로 하여도 지하층에서는 진동이 느껴 불가항력적으로 사소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 현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두려워 피하지 않는다. 우리 현장에서는 피하지 않고 발파시 인접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주인과 같이 느끼며 공사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발뺌이 아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인간적인 교류로서 민원에 대처했다. 또한 공사착수전에 공사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과 건물보상에 대하

여 사전조율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인접건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작업환경과 안전을 먼저 생각

본 현장은 무재해 시간이 약 7만2천시간으로 50만 시간 달성을 위해 오늘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석현 소장은 근로자에게 「근로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게 작업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밝고 명랑한 사업장 구성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욕심을 내면 화를 당합니다. 언제든지 안전하고 보람찬 일터를 만들기 위해 회사측에서도 환경을 깨끗이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또 한 명의 자랑스런 안전인의 탄생을 볼 수 있었다. 